

강진군의원·공무원 해외 출장 빈축

관개시설물 유산등재 수여식 참석 코로나 확산 무더기 출장 부적절 완도군은 수여식 불참 대조적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 의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무더기 해외 출장을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군의원 등 일행 8명이 ICID(국제배수위원회)의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로코 방문길에 올랐다. 무더기 해외 출장 명분은 강진 병영면과 작천면 일대에 있는 5개 연방축의 생태순환 수로농업시스

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된데 이어 최근 모로코에 본사를 둔 ICID(국제배수위원회)의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에 등재된데 따라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다. 해외 출장단은 이상심 부군수를 비롯해 친환경 농업과 직원 5명과 건설과장, 군의회 문춘단 의원 등 8명으로 이들은 지난 22일 5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출장 경비는 모두 3500여 만원으로 확인됐다. 출장단은 26일 모로코 '물문명 박물관'에서 인증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오전 수여식 참석을 제외하고는 바히야 궁전, 마차투어, 마조렐 정원, 베르베르 박물관, 아트라스 산맥 방문 등 주요 일정이 모두 관광으로 채워져 있다. 강진군과 함께 청산도 구들장으로 ICID(국제배

수위원회)의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된 완도군은 인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강진군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하면서 강진중앙초등학교에 24일과 25일 이틀간 학생들의 등교를 제한하고 원격수업을 실시했다. 또한 이승욱 강진군수는 아침마다 직접 마을회관 방송을 통해 "그동안 청정지역을 유지했던 강진이 최근 확진자가 발생해 불거짐이 될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에선 군민의 방역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과 의원이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굳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에너지특화기업 37개사 선정...전국 최다 41%

상반기 28곳 이어 9곳 추가 선정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 박차

나주시가 올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관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특화기업 선정에서 전국 최다 성과를 달성했다. 나주시는 올 상반기 28개사에 이어 광주-전남 융복합단지 입주기업 9개사가 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에 근거,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 사업 매출액 비중이 50%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수준과 경영 역량, 중점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북, 경북, 경남, 부산-울산, 충북 등 전국 6개 권역 단지에 입주한 120개 기업이 특화기업을 신청한 가운데 9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중 나주시 지역 특화기업은 상·하반기를 합쳐 전국 최다인 총 37개사로 전국 특화기업 점유율 41%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특화기업에 선정되면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가산, 산업부 연구개발과제 주관기관 참여 시 가점(2점 이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국회에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빛가람에너지밸리 중심 산업도로 도약 중인 나주혁신산단 전경.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세제 지원, 입주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나주시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특화기업 육성에 따른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오는 2024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자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입주기업의 R&D 실증, 융복합제품 및 제품 고급화 개발, 유망기업 기술사업화 패키지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관내 기업 21개사가 R&D 실증, 기술사업화, 국내·외 시험 인증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4억원을 지원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국 최다 에너지특화기업 선정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건의와 관련 규정 정비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과 유망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함평군, 일반 벼 1만3616t 매입 추진

공공비축미 매입 후 잔여량 해결 함평군은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후 잔여 물량 해결을 위해 일반 벼 매입을 추진한다. 함평지역은 전년 대비 쌀 예상 생산량이 18% 가량 증가해 공공비축미 매입 후에도 잔여 물량이 많

이 남아있다. 함평군은 함평농협쌀조합법인, 농협 및 정미소와 약정 체결을 통해 지역 농지에서 생산한 일반 벼 잔여물량을 매입한다. 약 4억4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포대당 신동진 1500원, 새청무·호평 1000원을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매입 물량은 총 1만3616t으로 현재까지 1만720t 가량 매입했으며, 나머지 물량은 12월 말까지 매입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해 일반 벼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농가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이행하라” 장성군수 등 청와대 앞 삭발 농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의 이행을 요구하며 유두석 장성군수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 농성을 벌이는 등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이행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신속 설립 추진 장성군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4일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궐기대회는 장성군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대책위 주관으로 열렸으며, 장성지역 사회단체와 재경향우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삭발 농성을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은 5만 장성군민이 14년간 노력한 산물이자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며 "장성군민의 눈물겨운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유 군수, 심민섭 장성군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 4명은 입장 발표 후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의지를 정부에 전하고자 머리카락을 짧게 깎았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해 연구센터와 병원, 예방·재활센터 등을 짓는 국책사업이다. 전국 14곳에서 운영 중인 권역별 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100대 국정과제이자 광주-전남 3대 상생공약으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2007년부터 광주-전북과 인접한 장성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왔고, 유지에 성공했다. 지난해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은 질병청은 기존 운영 계획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실시설계와 부지매입 등 올해 예산 44억원의 집행은 미루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유두석 장성군수가 지난 24일 청와대 앞 분수 광장에서 정부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이행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이와 관련 질병청 관계자는 "국립심뇌혈관센터를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려면 총사업비를 490억원에서 1천5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인력은 200명대에서 500명대로 증원해야 한다는 후속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예산 44억원의 확보 근거는 복지부가 업무를 담당했던 시기의 예비타당성 연구용역"이라며 "근거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을 뿐이지 사업 의지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농기센터 공무원 '전남 으뜸지도상'

이현주 자원팀장·고현선 지도사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 공무원 2명이 '2021 전남 으뜸지도상'에 선정됐다. 화순군은 농업기술센터 이현주(원쪽) 생활지원팀장이 전남 으뜸지도상 대상에, 고현선 농촌지도사가 새내기 전남 으뜸지도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 으뜸지도상은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신념과 열정,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의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기술보급에 앞장선 전남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으뜸지도상 대상 수상한 이현주 생활지원팀장은 전통음식교육, 지역농산물 이용 식문화보급 등 농촌지원분야의 공적을 인정받았으며, 새내기 으뜸지도상 우수상을 수상한 고현선 농촌지도사는 현장중심의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이현주 생활지원팀장은 "지역향토음식 확산 보급,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우리농산물 가공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던 결과가 좋은 상으로 연결되어 기



이현주(왼쪽) 생활지원팀장과 고현선(오른쪽) 농촌지도사가 '2021 전남 으뜸지도상'에 선정됐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